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비교고찰*

정 순 화¹⁾

임 정 하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과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가족관련 법령과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남한의 가족관련 법령과 가치관 조사 자료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경제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먼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관에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향하고, 결혼관에서는 영예군인과의 결혼, 감소한 결혼식을 장려하였고, 부부관에서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관에서 사회주의 혁명영군인 자녀출산과 양육을 강조하고, 가족부양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가족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첫째, 모두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남한은 개인이 우선시된다. 둘째,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나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기준, 이혼 등에서 북한은 제한이 많은 반면, 남한은 자유로운 선택이 우선시된다. 셋째, 모두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나 북한은 역할인식 및 수행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넷째, 모두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주체도 유사하나 자녀교육의 목표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모두 부양의식을 미풍양속으로 간주하나 남한의 가족부양의식은 북한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북한 가족가치관, 남북한 비교, 조선녀성, 가정생활교육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034).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문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jhlim@korea.ac.kr)

I. 서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2013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2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 산업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운재, 2013). 그러나 점차 벌어지고 있는 사회계층간 소득격차, 성별·세대별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차별 등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24위로 꼴찌 수준이며(손정호, 2014), 이는 바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 수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상황에 처해 있고 통일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은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정치·경제·사회적 수준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정생활 수준에서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사회통합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Todd(1997)는 가족관계 유형이 사회현상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을 사회제도적 차원까지를 포괄하는 일종의 복합체로 설명하였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정생활의 변화는 사회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정부차원보다는 가정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해결해왔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권 초기에 전통적인 가족제도 자체의 말살을 시도했던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시기와 이후의 경제난을 국가차원의 공적 부양이 아닌 가족부양의 차원에서 타개하고자 하였다는 사실(김미주, 2010)은 가정생활이 사회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대한 탐구는 사회통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측면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정생활에서의 변화는 사회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이념적 측면은 물질적 측면보다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생활이나 식생활영역의 변화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난다. 통일 이후 발생할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38.8%) 가치관의 차이(24.1%), 정치적 혼란(14.6%)의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한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 및 조직화된 관념체계(박혜인, 1990)로서 변화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권 초기에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유교적 가족가치관이 존속되고 있었다는 사실(도홍열, 1999)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가치관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통합의 선결과제로서 북한의 가족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시간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가족가치관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난이다. 1980년대까지 철저한 사상교육과 외부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에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1990년대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등 행동양식과 사회의식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지도자의 교체와 이로 인한 체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외부 문화가 활발하게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배고픔과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북한 주민들의 체제나 이념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

고, 남한 영상매체 시청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등 경제상황 악화와 외부 문물 유입의 영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권오국, 문인철, 2011; 이우영, 2012; 이주철, 오유석, 2007). 그러므로 1990년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 시기와 1990년대 그리고 이후 시기 가족생활의 변화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접근에서 가장 보편적인 연구대상은 북한 이탈 주민이었다.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assimilation) 과정을 거쳐 주류사회에 편입된다는 가정(Gordon, 1964)에 근거한 것이었다. 동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고 모두가 희망하는 방식이라면 남북한 통일 상황에서도 비주류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주류의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북한 통일 상황은 탈북자 집단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고유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마음이 없이 남한의 문화를 선호하고 이를 따르고자하는 동화유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실제로 남한보다 중국과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는 북한 주민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박경숙, 2013). 그렇다고 하여 남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합을 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1) 장마당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이 확대되면서 불법적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1990년대 북한시장을 통칭하는 용어.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는 시장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을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할 대상이자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대상이라는 긍정적인 인식(44.4%) 못지않게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계대상이자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48.6%)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그러므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양쪽의 가정생활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해나가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Berry, 1980)의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 주민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가족가치관을 남한의 가족가치관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남북한 상호 간에 문화적응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가족가치관에서의 동질적인 측면과 이질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쌍방향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녀성」과 북한 가족관련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선녀성」²⁾은 북한주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분석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녀성」은 1956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어 시대별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녀성」 중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 비치된 197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요 가족관련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⁴⁾,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⁵⁾, 조선민

2)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공식 기관지. 북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용 잡지인 만큼 가정에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는 잡지

3) 주체 79(1990. 10. 24)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2. 주체 82(1993. 09. 23)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35호로 수정보충 3. 주체93(2004. 12. 07)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⁷⁾을 중심으로 북한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가족가치관은 국가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관련 주요 법령도 가족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가족가치관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남한의 자료로는 대한민국 민법(가족법)⁸⁾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⁹⁾와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보고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분석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녀성」의 내용 가운데 가족가치관을 반영하는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2단계로는 가족가치관을 몇 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옥선화(1984)는 가족가치관을 결혼전 배우자선택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 후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박혜인(1990)은 자녀나 노후, 여성, 전통의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김경신(2002)은 결혼, 성역할, 자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신의 분류에 근거하되 성역할의 영역은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포함시키고, 효에 대한 부분은 가족주의에 포함시켜 가족에 대한 가치관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조선녀성」에 수록된 가족가치관 관련내용을 결혼에 대한 가치관(결혼관),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부부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자녀관),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관(가족부양관),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가족관)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구분 과정에서 1개의 기사 내에 2개 영역 이상의 내용이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보다 강조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로는 5개 영역별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가족관은 선군사상,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 가정혁명화, 가정과 여성 역할의 중요성, 예절관련 내용으로, 결혼관은 간소한 사회주의식 결혼, 영예군인과의 결혼, 결혼보다 일이 우선됨, 이혼관련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부부관은 부부간의 혁명적 동지관계, 가정에서 아내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

4) 주체99(2010. 12. 2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09호

5) 름시위원회 결정 제45호 (1946.07.30)

6) 주체67(1978. 04. 1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호로 채택 2. 주체75(1986. 02. 20)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94호로 수정 3. 주체88(1999. 06. 16)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7) 주체99(2010. 12. 22)년 정령 제 1307호

8)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1996년 최초 조사(공보처) 이후 2008년까지 5년 주기로 실시해 온 조사이며, 본 조사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 실시된 「201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집계, 분석한 결과로, 만 19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으로, 자녀관은 자녀출산,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 그리고 자녀 교육의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가족부양관은 고부관계, 부모에 대한 도리, 기타 시댁가족과의 관계와 형제관계로 분류하였다.

4단계에서는 분류된 「조선녀성」의 자료를 근거로 이에 영향을 미친 가족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출, 분석하였다.

5단계에서는 북한의 자료와 비교할 남한의 자료로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보고서」 자료의 내용 가운데 북한 가족가치관의 5개 영역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가족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

「조선녀성」에 수록된 가족가치관 관련내용의 변화를 가족관, 결혼관, 부부관, 자녀양육관, 가족부양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표 1에서 「조선녀성」의 가족가치관의 영역 가운데 자녀관이 93건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부관은 18건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연대별로는 2000년대까지는 가족관련 기사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2000년대 이후에야 언급되었다.

5개 영역별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한 결과, 표 2에서 가족관에서는 선군사상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 가정혁명화와 가정과 여성 역할의 중요성, 예절관련 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관에서는 간소한 사회주의식 결혼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영예군인과의 결혼, 결혼보다 일이 우선됨, 이혼관련 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관에서는 부부간의 혁명적 동지관계를 강조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가정에서 아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자녀관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와 목표에 대한 내용이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출산, 조기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의 기사 내용에 교육의 주체나 목표, 시기 등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표 1. 가족가치관의 영역별 기사 수

	가족관	결혼관	부부관	자녀관	가족 부양관	전체
1980년대	2	4	0	20	3	29
1990년대	10	1	0	14	0	25
2000년대 이후	13	15	18	59	34	139
전체	25	20	18	93	37	193

표 2. 가족가치관의 세부영역별 기사 수

영역	세부주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전체
가족관	사회주의 대가정	2	3		5
	가정 혁명화		4		4
	선군사상		3	6	9
	가정, 여성 역할			4	4
	가정 예절			3	3
결혼관	간소한 사회주의 결혼		1	10	11
	영예군인과의 결혼	2		2	4
	결혼보다 일이 우선	2		1	3
	이혼에 대한 관점			2	2
부부관	혁명적 동지관계			16	16
	아내역할 강조			2	2
자녀관	자녀출산				
	사회주의 역군출산	2	4	5	11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				
	어머니	6	8	26	40
	부모			14	14
	탁아소와 유치원	3	2		5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				
	혁명역군	10	5	18	33
	전인발달	3		23	26
	조기교육	5	1	4	10
	기타		2		2
가족 부양관	부모에 대한 도리			5	5
	고부관계				
	며느리	2		13	15
	시아머니	1		5	6
	쌍방			5	5
	시댁관계, 형제관계			6	6

주. 자녀관에서는 하나의 기사에 교육의 주체나 목표, 시기 등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계산되어 있음.

중복 계산되었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로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기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부모 모두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주체로서 탁아소와 유치원 관련내용은 2000년대 이전에는 언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자녀양육 및 교육목표로는 사회주의 혁명역군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녀의 전인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자녀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시기에서는 조기교육을 강조하였다. 가족부양관과 관련된 내용은 고부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한 기사가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 동서관계나 기타 시댁가족과의 관계, 형제관계를 다루고 있었다.

가족관의 변화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유교적 가족가치관을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은 유교적 관습과 가부장제의 청산, 자유결혼과 자유이혼의 보장과 남녀의 평등한 관계 지향, 나아가 사유재산제도와 가족제도 자체의 소멸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2년 북한은 사회정치생명론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치생명론의 핵심은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

며,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당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은 대중은 자녀로, 수령은 아버지로, 당은 어머니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가정의 영역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간주하고, 각 가정을 전체사회의 기초단위로 규정한 것이다(도홍열, 1999). 김일성을 ‘아버지 김일성’으로 명명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1980년대 「조선녀성」의 내용은 이러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숨은 애국자-공산주의 어머니>에서는 미제야수들에게 피살된 당원들의 자식들을 애국열사유자녀로 잘 키워가리라 다짐하는 김옥화여성의 기사를 통해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90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에도 가정혁명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가족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던 기존의 가족정책으로부터의 전환과 동시에 경제난의 극복에서 가족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대가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에는 가족법의 사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제1장 제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당국은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경제난으로 주민

이탈이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은 경제위기상황을 국가차원의 공적 부양이 아닌 가족부양의 방법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을 근간으로 부상당한 영예군인과 고아, 독거노인의 문제까지도 가족부양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조선녀성」의 내용도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나 선군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머니> <자랑스런 조선녀성들의 모성애>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혈육과 동지>라는 기사에서는 가정보다 국가가 우선된다는 가정혁명을 강조하였고, <어머니의 마음> <하나의 대가정 속에 꽃피는 소행> <사랑과 화목으로 꽃핀 나라>에서는 부모 잃은 어린이들이 생기면 저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새 세대 청년들이 부상당한 영예군인의 영원한 방조자가 되며, 홀몸의 늙은이에게는 저마다 그의 자식이 되는 사회적 풍조를 만듦으로써 사회주의 대가정을 건설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나이든 부모들이 여생을 잘 보내도록 돌봐주는 것도 여성이고,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것도 여성이며,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고 이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사람도 여성이라고 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을 건설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시기 「조선녀성」의 내용에는 자녀를 군인으로 키운 군인가정과 총대가정, 군대에 원호물자를 지원하는 원군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선군시대에 가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가정 한혈육>에서는 인민군대를 친

혈육의 심정으로 살피는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묘사되었고, <당의 온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영웅의 어머니> <사랑과 의리>에서도 선군시대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랑과 의리>에서는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길러 30여 톤의 고기를 인민군대와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보내주고 1,500여 마리의 새끼돼지를 인민군부대들과 이웃들에 나누어주어 기르도록 한 선군시대 어머니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에는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민이탈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온 세상에 자랑 높은 우리의 어머니들> <선군시대에 꽃 핀 새 가정>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의 보람과 행복은 어디에> <원군을 가풍으로> <어머니의 소원입니다>에서는 북한에는 총대가정의 어머니, 영웅을 키운 어머니,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어머니,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영웅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머니들이 많음을 언급함으로써 선군 대가정의 실현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민족성배양과 가정교육> <우리 가정의 아침은 즐겁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우리 녀성들이 꽃피워야 합니다>에서는 가정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가족성원들 사이에 지켜야 할 레절> <가정에서의 부름말> <내리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중>은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을 위한 예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혼관의 변화

남녀평등에 기초한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에서 배우자 선택기준은 전통사회처럼 신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유혼을 지향한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자유결혼을 경계하여, 남자는 권력이나 돈으로 여성을 매수하지 않고 여성은 다른 조건보다는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여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북한 사회는 배우자 선택기준에서도 계층별·계급별 차이가 심하고, 가장 훌륭한 배우자감은 군인, 당 일꾼이며, 특히 부상당한 영예군인의 아내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조선녀성」의 내용 가운데 <참된 녀성에 대한 생각> <대흥처녀들의 어머니들은 말한다>에서는 부상당한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청춘을 빛내자> <아들딸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에서는 연구과제를 성공하기 전에는 결혼문제를 포함한 사생활에 일체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결심과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생활에 포로가 되지 않고 처녀시절 못지않게 자신이 맡은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도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제1장 제9조)고 명시함으로써 결혼보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됨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혼례는 신부 집에서

먼저 치르고 신랑 집에서 다시 치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우리나라 전통혼례의 모습을 상당 부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참 좋았어요>에서는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두 번의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양가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 결혼식을 간소하고 검소하게 올리는 것을 권장하였다.

2000년대에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는 간소한 결혼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결혼식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관혼상제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하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하자> <정말 좋았습니다> <그저 그만이였습니다>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하자> <결혼식 옷차림과 몸단장을 우리 식으로 하자> 등 많은 기사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강조하였다. <정말 좋았습니다>에서도 잔치는 신랑쪽 신부쪽 가를 것 없이 공동으로 합잔치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관혼상제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하자>에서는 결혼식을 미신적으로 해석하여 정하는 것, 궁합을 보는 것 등은 모두 낡고 뒤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름다운 녀성> <행복>에서는 선군사상의 영향으로 장군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 하며 두 다리가 되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겠다는 여성의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에서는 피끓는 청춘시절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일찍이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에 문

혀 아까운 청춘시절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 정권 초기에는 자유결혼뿐 아니라 자유이혼의 보장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재판이혼만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제5장 제54조)라고 명시함으로써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조선녀성」의 내용도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백년가약이라는 말을 두고> <가정의 행복을 두고>에서도 청춘남녀가 정을 나누면 가정을 이루고, 일단 가정을 이루면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서 가정이 불화하거나 이혼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혹시 이혼하는 경우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였다.

부부관의 변화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은 200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은 자유혼을 지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 사회에서 자유혼은 남녀 간의 애정적인 유대감에 기초한다기보다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동지적 관계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부부관계와 관련된 「조선녀성」의 내용도 대부분 부부간의 평등한 혁명적 동지관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절, 믿음 등의 덕목을 강조한 내용이었고, 2개의 기사내용은 부부관계에서 특히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세대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백년가약>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부사이의 레절을 바로 지키자> <다정한 사랑> <다정한 부부, 화목한 가정> <가정생활과 참다운 부부애>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덕> <부부사이의 룰리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인격준중은 부부사이의 룰리> <리해력의 크기는 정의 두터움> <양보는 부부의 미덕> <가정적 의무에 대한 성실성은 화목의 디딤돌> <부부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리> 등의 기사에서는 부부관계가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참다운 사랑의 핵심은 공통적인 사상과 공동의 이상을 기초로 성립되는 동지적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부 간에 단순히 애정적 관계를 초월하는 혁명적 동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믿음과 예절을 강조하였다. 부부사이의 예절은 인격적 측면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기초가 되며, 이러한 예의도덕은 가부장적인 예의도덕이 아니라 동지적 예의도덕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부사이의 레절을 바로 지키자>에서는 “남편이 안해에게 반말을 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것은 안해를 업수이 여기는 것으로 되며 문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된다. 가정에서 안해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문화성이 없는 표현이며 안해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으로서 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함으로써 인격적 측면에서 평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향하는 평등한 부부관계는 법률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일찍부터 북한에서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제4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곧

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제5조)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의 재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분배의 권리를 가진다.”(제8조)라고 명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도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제3장 제18조)고 명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에서도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제6장 제44조),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6장 제45조)고 함으로써 부부간의 인격적 평등관계를 명시하였다.

또한 평등한 부부관계는 인격적 측면에서의 평등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에서는 남녀 간의 평등한 역할분담을 강조하였다. 즉, 노동의 주체로서 아내의 사회진출로 인해 생기는 공백을 남편의 몫으로 규정하고 가사를 돌보고 자녀양육의 역할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아내의 위치는 노동의 주체인 동시에 전통적인 역할구분에 근거해 남편을 내조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원앙새 부부>에서는 알뜰하게 살림을 챙기는 것을 중시하는 아내 역할을 강조하였고, <안해의 다심하고 너그러운 리해력은>에서는 아내의 너그러운 이해력이 부부의 정

을 두텁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둥지는 새에 달려있고 살림집은 처에 달려 있다’(조선녀성, 2011년 5월호)는 세계의 속담을 인용함으로써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 북한에서 바람직한 여성상은 노동과 가정일을 모두 잘해내는 슈퍼우먼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관의 변화

「조선녀성」의 내용 가운데 자녀관과 관련된 내용은 자녀출산,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자녀출산. 가정을 사회의 기초단위인 세포로 간주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자녀출산을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대가정의 번영을 위한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왔다. 1980년대 「조선녀성」의 내용 가운데 <북받은 세쌍둥이> <사랑 속에 자라는 꽃송이들>에서는 세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나라가 흥하는 징조라고 하여 자녀출산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도 <모성영웅들의 목소리>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운 어머니들에게 모성영웅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아이들 많이 낳아 키워야 한다시며> <9남매의 어머니> <선군시대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가겠습니다> <녀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본분이며 애국사업>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여성의 본분이자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다. <우리 여성들에게 돌려지는 산전산후유급휴가제의 사회적 혜택>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이므로 이들에게 일정 기간 옷과 포단, 젖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에서도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제6장 제50조)고 명시하였다. 또한 “부부간에 리혼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성은 안해가 임신 중에 있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리혼을 제기할 수 없다.”(제6장 제47조)고 명시하고 재산분할에서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고 자녀와 여자측의 리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제6장 제 48조)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역군인 어린이와 그들의 어머니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편, 비록 아들은 낳아 키우지 못했지만 딸들을 인민군대에 내세우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는 <어머니의 보람>의 내용이나 계속적으로 아들에 대한 꾸밈을 하는 할머니에게 딸자랑을 하는 모습을 그린 <딸자랑> 등의 기사를 통해 북한 사회에 남아 있는 남아

선호사상의 잔재를 엿볼 수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 「조선여성」의 자녀관련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1990년대까지는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로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부모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마을의 학부형> <그 어머니에 그 딸>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 <어머니가 거울이 될 때> <어머니의 책임이 중요하다>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우는 것은 어머니들의 책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의 임무와 역할을 밝힌 강령적 지침>에서는 가정교양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적으로도 북한에서는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도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제1장 제6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장 제2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5장 제55조)라고 하여 특히 어린 영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자녀양육에서 유치원이나 탁아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입니다>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는 심오한 사상으로 인해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쏟았고,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마련해주시여>에서는 나라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기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 건립에 국가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에서도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8장 제71조)고 명시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의 일이지만 유치원과 탁아소가 양육의 역할을 공동으로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도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어머니가 아닌 부모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거울> <그 어머니에 그 딸>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등 다수의 기사를 통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실천적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이 앞날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무거운 책임과 영예를 더욱 깊이 느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머니의 영향만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어린이의 자신심> <가정의 거울> <어린이의 성격형성과 가정교양> <자녀교양에서 부모들의 책임성과 역할>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 등

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부모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양에 마음을 합쳐야 한다>에서는 가정교양에서는 아버지 몫도 있고 어머니 몫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마음을 합쳐 가정교양에 정력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 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제4장 제38조).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4장 제39조)라고 명시함으로써 자녀교양에서 부모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교육의 시기에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릴 때부터 체험으로 하도록> <어릴 때부터 아기는 습성을 키워주어> <좋은 말버릇은 어렸을 때부터> 등에서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아기는 습성을 키워주어야 커서도 훌륭한 일군이 된다고 하였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제3장 제27조)라고 명시함으로써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못지않게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는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기사가 사회주의 혁명역군을 길러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자녀의 전인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이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충성심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것은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 <어린이들을 혁명의 미더운 역군으로> <아들딸들을 혁명의 미더운 새 세대로>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목표로서 혁명역군을 키우기 위해 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강조하였다. <15분간의 수업에 바쳐진 정성>에서는 수업준비를 잘하고 실속있게 배워주면 어린 가슴에도 계급적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였고, <어린이들을 혁명의 미더운 역군으로>에서는 유희시간에는 정서교양과 함께 반드시 지주, 자본가들을 미워하도록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도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로 사회주의 혁명역군을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와 역할을 밝힌 강령적 지침> <충실성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역할> <그 어머니에 그 아들>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 <어머니의 보람> <공중도덕과 어머니> <아이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어머니의 교양에 달려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충성동, 효자동이로> 등에서 아들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하는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길러내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본분임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도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충성동으로 키우자> <충대감을 역세게 키워가는 녀성> 등 다수의 기사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장군님을 충대로 받드는 군인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녀의 소질, 지능개발 및 학습, 성격형성 등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린이들의 자신심 안겨주기와 어머니>에서는 어린이들의 자신심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며, 책망 대신 격려해 주고, 아이의 능력과 취미에 맞게 기대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를 용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로 키우자면>에서는 자녀를 용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놀라게 하거나 지나치게 엄하게 다스려 공포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놀이를 통한 자녀교양>에서는 부모들은 놀이를 단순히 아이들의 흥밋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놀이를 통하여 자녀들의 지혜가 발달하고 창의성이 더욱 발달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놀이감을 잘 마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을 중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상당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부양관의 변화

북한정권 초기에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사회주의적 가족가치관의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정부 차원의 공적 부양보다는 가족부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부양의식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는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제3장 제19조), “자녀는 부

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제3장 제28조)고 명시함으로써 부부 간의 부양뿐 아니라 자녀의 부모부양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제3장 제35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제3장 제36조)라고 명시함으로써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간의 부양의무도 규정하였다. 나아가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제3장 제37조)라고 부양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가족부양을 강조하고 국가부양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조선녀성」에서는 주로 노부모부양을 미덕으로 삼는 기사들이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고부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특히 며느리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1980년대의 기사 가운데 <교훈> <가정의 화목은 며느리에게>에서는 사회가 건전하려면 사회의 세포를 이루는 가정이 건전해야 하며, 가정이 건전하려면 한가정의 주부인 며느리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서는 며느리가 집안살림 걱정을 하지 않고 바깥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는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덕>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덕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세심하게 보살피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며느리의 마음> <다섯 며느리 자랑> <사랑받는 9호집 며느리> <가정의 화목은 전적으로 우리 며느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시어머니이기 전에 혁명선배입니다> 등에서 시부모를 극진히 공대하고 보살피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이자 미풍양속이며,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대하고 존경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이며 일생의 길동무인 남편을 낳아 키워준 시어머니를 더 잘 모셔서 가정을 웃음과 행복이 꽃피나는 선군시대의 모범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고부관계에서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며느리를 귀중히 여기면 행복이 꽃피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제일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친자식> 등에서는 시어머니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시어머니가 되면 응당 며느리에게서 공대를 받아야 한다는 낡은 생각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직장에 나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림을 돌보아주는 것이 시어머니들의 본분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안해가 곱다고 어머니를 박대하는 것은 아들이 효성스럽지 못한 때문이고 아들을 시켜 며느리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어질지 못한 때문이다.’(조선녀성, 2003년 9월호)라는 속담을 인용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고부관계에서 쌍방적인 예의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우리 어머니> 등에서 가정 화목의 핵심으로 고부 쌍방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례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등의 기사를 통해 부모를 잘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폈던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널리 계승함으로써 가정생활의 화목을 도모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아버지의 밥상>에서는 우리나라의 풍습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밥상을 드리게 되어 있으므로 노인들이 사용할 독상을 따로 맵시 있게 만들어 공급하여야겠다는 기사를 통해 시아버지와 관계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와는 달리 상호호혜적인 특성보다는 공경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서들 사이의 도덕관계> <따뜻한 정은 동서들 사이에도>에서는 동서들은 말동서를 시어머니 다음가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그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등 동서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지켜야 할례의도덕> <시동생과 시누이, 형수사이에 지켜야 할례의도덕> <형님의 수고를 헤아릴 줄 알아야한다>에서는 형제관계와 시댁 가족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2.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단 이후 경험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불구하고 남북한은 가족가치관에서 여러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가족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전반적으로 남북한은 모두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존속, 기능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Kulff, 1925). 북한정권 초기에 사회주의 가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가정혁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는 여전히 가족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에서 사람들의 기층생활단위이며 사회의 세포인 가정이 혁명화되어야 온 사회의 혁명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할 만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남한의 가치관조사에서도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을 ‘가정’(2008년: 68.1%, 2013년: 68.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2013). 즉,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은 모두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간주되는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가족주의는 외형상으로는 국가공동체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념을 토대로 국가 전체를 하나의 가정에 비유하여 가족의 힘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념은 바로 강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국가공동체로까지 확대시킨 것으

로 볼 수 있다. 법률상으로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제1장 제1조)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가족주의는 국가 전체로까지 확장되며, 나아가 외형상으로는 가족보다 국가공동체를 보다 중요한 집합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반면, 남한의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분단 이전시기에는 전통적·유교적 가족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분단 이후 경제발전과 서구식 가족가치관의 유입으로 점차 근대적, 탈근대적 가족가치관으로 변화해왔다. 그 결과, 오히려 가족이라는 집합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기를 원하는 이유에서 상당 비율이 ‘자식보다는 부부(본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서’(19.8%)라고 응답한 것(문화체육관광부, 2013)도 바로 가족중심보다는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을 반영해준다.

남북한 결혼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결혼관에서 남북한은 모두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제1장 제2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제1장 제11조)고 명시함으로써 법률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남한의 [민법]에서도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12조)라고

명시함으로써 법률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결혼 가능한 법률상의 연령도 북한의 경우 남자 18세, 여자 17세로, 남한의 남자 18세, 여자 16세와 그다지 차이가 없으나 남북한 모두 초혼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원인은 북한의 경우 개인의 선택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한 결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쁨을 장려한다.”(제1장 제9조)고 명시하였으며, 「조선녀성」의 기사에서도 가정을 이룬 후에도 국가와 인민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여성상을 강조해왔다. 반면, 남한의 경우 혼인율의 감소는 결혼보다 개인의 삶을 우위에 두는 실존적인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결혼에 대한 가치관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62%)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결혼은 꼭 할 필요는 없다’(38%)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대(50.1%)와 30대(47.3%)의 절반 정도가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45.3%)의 경우 남성보다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대별, 성별 차이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공보처, 1996;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13).

배우자 선택에서도 남북한 모두 자유혼을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경우 “청춘남녀가 정을 나누면 가정을 이루고”(조선녀성, 2002년 7월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자유연애를 지향하지만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혼전순결을 지켜야한다’(62.3%)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37.7%)는 응답도 상당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북한에서는 당성과 성분을 꼽고 선군사상의 영향으로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장려한 반면, 남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중복 선택)으로 성격(94.6%), 가정환경(72.4%), 직업(45.9%), 재산(32.1%), 외모(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중요도는 조사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성격은 일관성 있게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2013).

남북한은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이혼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재판이혼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혼에 대해 보다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남한의 경우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모두 가능하며, 점차 협의이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법률상으로도 이혼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조선녀성」의 <백년가약이라는 말을 두고> <가정의 행복을 두고>에서도 가정화목의 기초를 부부관계에서 찾고 이혼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반면, 남한의 경우 법률상으로도 무결점이혼을 허용하는 등 보다 허용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3)에서도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58.9%)고 응답한 비율도 높지만, ‘그

렇지 않다’(41.9%)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혼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제2장 제11조)고 규정함으로써 아예 사실혼관계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점도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 부부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남북한 모두 부부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격적 측면에서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과 남한의 「민법」에서도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부부간의 평등성에서 인격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을 특히 강조하므로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한다. 「조선녀성」의 다수의 기사에서도 부부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에서 남편의 역할보다는 아내의 너그러운 이해력은 부부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아내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였다. 가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에 힘쓰면서 동시에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며, 가사노동까지 담당하는 아내의 이중역할을 전제로 한 혁명적 동지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부부관계에서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역할분담은 덜 강조함으로써 북한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전통적 성역할관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우리 사회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53.3%)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46.7%)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상당 부분 성역할 평등의식이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부부 간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수준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91년 민법 개정으로 종전에 부계 8촌 이내, 모계 4촌 이내로 되어 있던 친족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동일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姻戚)으로 하였다(민법 제777조).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子)에 대한 친권 행사가 부(父)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던 것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제909조 제4항).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제781조 제1항), 나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 제6항)고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애정적 유대감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조선녀성」의 내용 가운데 부부관계

와 관련된 내용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가 우선되는 다분히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우 부부관계에서 애정적 유대보다 동지적 사랑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부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부부관계가 다른 관계나 국가에 종속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 남한의 경우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가 중요하다(87.2%)는 응답이 자녀가 중요하다(81.2%)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는 남한의 경우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한 자녀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자녀관에서 먼저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모두 자녀출산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역군인 자녀출산이 어머니의 본분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정책으로 자녀출산을 장려하였고, 남한의 가치관조사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81.2%)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16.8%)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또한 자녀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 훈장과 사회적 포상이 주어지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경우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식량난으로 인한 것이

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용과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56.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식보다는 부부(본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서’(19.8%)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자하는 탈근대적 가치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어머니의 보람> <딸사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도 남아를 선호하는 유교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는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1996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남아(40.4%)를 선호하는 비율이 여아(9.8%)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공보처, 199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아들을 원하는 비율(1명: 71.0% 2명: 20.3%)과 딸을 원하는 비율(1명: 68.4, 2명: 26.1%)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나 시기에 대한 관점은 남북한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모두 가정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여 가정교양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유사하다. 북한에서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어머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녀양육에서 부모 모두의 역할을 언급하였고, 나아가 가정교양에서 아버지 몫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가정교양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북한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에서는 유사점도 있으나 뚜렷한 차이점도 나타났다. 2000년대 이전 북한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녀를 공산주의 혁명전사로 키우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하며, 명랑하고 쾌활한 품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창조성과 놀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전인발달의 관점에 근거하여 자녀양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책임감(29%), 근면/성실(20.9%), 타인에 대한 배려(16.8%) 등의 덕목을 중시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남한의 자녀교육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한의 자녀양육 및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혁명역군의 육성과 이를 위한 사상교육의 강화가 특징이다.

남북한 가족부양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남북한 모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고 장려하고 있음은 유사하다. 그러나 이를 강조하는 배경이나 부양의식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가족법이나 「조선녀성」에서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효’를 공산주의 도덕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가족부양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은 식량난과 관련이 있다. 식량난으로 노인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가정내에서 연장자의 권위가 훼손됨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절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아내권보다 모권이 강한 가족관계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의식도 존속되고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노인부양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지도 않았으며, 핵가족화와 여성 취업률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아내권이 모권을 능가하며 노인부양의식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58.7%)고 응답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41.3%)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 ‘그렇다’(74.9%)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해 누구의 부담이 가장 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70.2%), 복지제도(23.5%), 자녀나 자녀의 가족(6.4%)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는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수준뿐 아니라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부양기대수준도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북한 모두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이자 원천적 부정관계로서 고부관계를 가족 내 화목의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한 것은 유사하다. 「조선녀성」의 고부관계 관련 기사내용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며 본분이므로 고부관계에서 자녀세대인 며느리가 순종하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나아가 시부모 공대를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고부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며느리 쪽이 비난

을 받지만, 시어머니도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며느리가 직장에서 보다 많은 노력점을 따는데 도움이 되도록 쌍방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우 식량난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지위하락과 나아가 노인구휼을 위해 다분히 정책적으로 노인부양의식을 고취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원천적 부정관계라는 고부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인 측면이 고부관계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남북한 가족가치관을 비교해봄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관에서 북한은 1980년대에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로 변화시켜나갔다. 1990년대에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은 더욱 확장되었고, 2000년대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둘째, 결혼관에서 북한은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실현을 위해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는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감소한 결혼식을 강조하였고,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혼식을 장려함과 동시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강조하였다. 셋째, 부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부부관계에서 인격적 평등, 경제적 평등 나아가 가사노동에서의 평등한 역할분담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부관계에서 애정적 유대감보다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였다. 넷째, 자녀관계에서 자녀출산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로 1990년대까지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이와 동시에 부모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로는 199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혁명역군의 양성을 강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이와 동시에 자녀의 전인 발달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가족부양관계에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가족부양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부모 부양을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덕으로서, 특히 고부관계에서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고부 쌍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고부관계 외에도 형제관계나 시가 가족원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에는 경제난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권초기 북한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말살하고 이를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이러한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을 표방하였으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 착취제도라고 배격했던 상속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노부모 봉양을 미덕으로 간주한 것

은 실제로는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의 수정과 동시에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부분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관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간소한 결혼과 영예군인과의 결혼,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강조, 가족부양범위의 확대는 모두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제난은 외형상으로는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가족가치관을 수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경제난이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북한 주민들의 경우 Maslow(1954)가 말한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보다 상위의 욕구 충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Maslow는 인간은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욕구는 일단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므로 배고픔과 같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다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 가치관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욕구 수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인 가정은 안전에 대한 욕구와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

서 가정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경제난 당시 식량부족으로 아사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당시 교실 당 학생출석률이 30~40% 수준이었다고 한다(김향춘, 2014). 이러한 사실은 남한 학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처해 있는 상이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서로의 이질성을 줄여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문화적응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에서 남북한은 모두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Hofstede(1995)는 전통적 가치체계의 중심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집합주의 가치지향을 들었다. 이는 집합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인보다 집합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집합주의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가운데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서구사회에서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거의 법률적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반해 남북한의 가족법에서는 친족의 범위까지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가족을 동반한 탈북자들이 단독으로 온 탈북자들에 비해 적응에서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기춘 외, 2001). 이는 국가공동체를 포기하고 탈북을 선택한 경우에도 가족을 통해 받는 정서적 지지와 보호는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의 가치관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의 가치관을 Zetterberg의 가치관 모델로 유형화 할 때, ‘전통-원칙-사람’을 중시하며, 일의 성과보다는 혈연관계나 고향관계를 중시하는 ‘애향형’(33.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러한 사실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경우에도 가족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은 외형상으로는 가족보다 국가공동체를 보다 중요한 집합체로 간주한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가족주의가 자기 가족의 이익에 국한되면서 점차 가족이기주의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며, 나아가 탈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의 영향으로 가족이라는 집합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가족이기주의는 Banfield(195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들이 핵가족의 물질적 이해를 초월하여 촌락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가족주의’(amoral familism)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이익이 가족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도덕적 개인주의(amoral individualism)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남한의 개인중심주의와 북한의 공동체중

심주의적인 특성을 통합하기 위한 매개로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관에서 남북한은 모두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선택에서도 자유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개인의 선택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하고,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등 결혼에 대한 제한기준이 남한에 비해 많은 반면, 남한의 경우 결혼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좌우된다. 이성교제에서도 북한은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남한은 보다 개방적이다. 배우자 선택에서도 북한은 당성과 성분을 강조하는 반면, 남한은 개인적 기준을 강조한다. 또한 이혼에서도 북한은 재판이혼만 가능하며 이혼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반면, 남한은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이혼에 대한 시각도 보다 긍정적이다.

최근 만혼에 따른 저출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에서도 적절한 연령이 되면 결혼을 중용하며, 생활고로 인해 30대 미혼여성이 드물지 않고 여성들 사이에서 독신 선호현상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배우자 선택기준에서도 북한에서는 과거에는 성분과 토대가 가장 우선시되었으나 식량난 이후 경제력이 중요해지면서 좋은 배우자감의 기준으로 토대보다 돈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2003). 또한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사실혼이 급증하였으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혼을 사상적 해이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고 여성들의 경우 구직이나 주택분배

등에서의 차별, 직업생활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로 인해 이혼을 꺼려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북한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혼율이 부쩍 증가하였다고 한다(김수암, 김국신, 김영윤, 임순희, 박영자, 2011; 이경식, 2009; 통일교육원, 2013).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북한의 법령이나 「조선녀성」을 통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결혼관과 실제 결혼관행 간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결혼관의 변화는 쌍방적인 문화변용이라기 보다는 경제난이나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남한 문화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문화동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법률적·정책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특히 북한 주민에게 통일 이후 가장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 집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annheim(1952)은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청년기로 간주하고, 개인의 의식이 확고해지고 세계관이 안정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25세경으로 보았다. 그는 사회변동은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며,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기의 생활경험의 차이가 클수록 세대 간 가치관의 격차도 커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대 차이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을 질적으로 상이한 성장배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합이후 진정한 의미의 가정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성교제와 결혼생활 등을 중심으로 한 가

정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부부관계에서 남북한은 모두 인격적·경제적 측면에서 평등한 부부관계와 평등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대가정을 위한 혁명적 현모양처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여성의 이중부담과 역할 불평등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기혼여성상인 혁명적 현모양처상은 바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이 탈주민이 증명하는 북한가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남녀 간의 역할분담이 엄격하고,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전통적 가족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6). 이에 반해 남한의 가치관 조사에서는 남녀를 보다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러한 남북한의 부부간 역할분담 인식과 수행에서의 차이는 통일 이후 가족관계의 취약한 부분으로 대두될 수 있다. 남한의 가족의식·가치관 조사에서 “결혼은 꼭 할 필요가 없다.”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일관성 있게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공보처, 1996;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13).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과중한 역할부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수행의 차이가 보다 극명한 북한의 경우 통일 이후 역할수행에서 남녀 간 불균형 문제는 부부관계에서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는 북한의 경우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로 인식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즉, 부부간의 애정적 유대가 가족 형성의 기초가 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실현을 위한 자녀출산과 양육이 근간이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외간남자와의 만남이 잦아지다보니 ‘8.3부부’라고 부르는 불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북한연구소 편집부, 2012). 이는 동지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일방적인 헌신과 역할을 강조해 온 북한의 정책에 대한 일종의 도전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이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여성의 저항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정해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성별에 따라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새로운 문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 문화수용 태도를 보이므로(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남녀 간 역할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이중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 평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자녀관계에서 남북한 모두 자녀출산을 중시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부모 모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한 것이라면 남한은 자신의 삶

을 즐기고자하는 탈근대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의 목표가 북한은 혁명역군을 길러내기 위한 사상교육과 도덕교육 위주라면 남한은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의 교육목표의 차이는 심각한 이념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에 근거하여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에서도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아 중·상류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어나 피아노 개별수강을 많이 시키며,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치 간부가 되기를 원했으나 최근에는 돈벌이도 빠르고 외국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술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김수암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창의·인성교육을 표방하는 남한의 교육이념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전인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자율적 교육운영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이종재, 2014). 또한 남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형태로 전인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부양관에서 남북한은 모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장려하고, 가족부양에서 특히 고부관계를 강조한 것은 유사하지만 그 이유나 실제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경우 가족부양을 강조한 주된 이유는 식량난이었고 아직도 노인부양의식이 남아있는 반면, 남한은 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이나 부모세대의 부양기대수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이처럼 부양의식이 약화된 데에는 세대 간 차이나 갈등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두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 갈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차이가 ‘크다’고 응답(46.5%)한 비율과 ‘작다’고 응답(53.5%)한 비율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차이가 ‘크다’고 응답(75.7%)한 비율과 ‘작다’고 응답(24.3%)한 비율의 차이는 이보다 크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러한 남북한 부양의식의 차이와 세대 간 갈등은 통일 이후 특히 북한 노부모세대에게는 상당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사실(정순화, 임정하, 2013)에 비추어 볼 때에, 이는 특히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와는 달리 충효사상 등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에 대한 의식에서는 ‘자랑스럽다’(2008년: 84.1%, 2013년: 85.9%)는 응답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2013). 이는 세대차로 인한 갈등이나 고부갈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우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잔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문화의 실천이나 세대 간 갈등 문제를 규범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하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뛰어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절을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풍습으로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경제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욕구수준의 차이와 관련된다 볼 수 있다. 욕구수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교육과 상호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은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남북한 모두가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남한의 개인중심주의와 북한의 공동체중심주의적인 특성을 통합하기 위한 매개로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결혼관과 실제 결혼관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와 결혼생활 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경우 역할인식 및 수행에서의 불균형 문제는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가정해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교육목표의 차이는 심각한 이념대립을 초래하므로 북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남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차이와 다름을 인식시키는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한의 가족부양의식은 약화되었으나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잔재해 있다. 따라서 효와 세대갈등 문제를 규범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질문지법이나 심층면접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북한 사회의 전반적 가족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분석과 남북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가족관련 법령과 「조선녀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과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통일 이후 효율적인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가치관 분석을 위해 사용한 「조선녀성」에 상응하는 남한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자료와 비교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관련 법령이나 「조선녀성」의 내용이 실제 북한의 가족가치관을 직접

적으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심층면접의 방법을 통해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보처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서울: 공보처.
- 권오국, 문인철 (2011).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7(2), 135-171.
- 김경신 (2002).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 노년학연구, 11, 63-86.
- 김미주 (2010).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가족담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수암, 김국신, 김영운, 임순희, 박영자 (2011).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통일연구원.
- 김향춘 (2014). 교사로 경험한 남북의 교육현 장이야기. 남북통일시대 대비교육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제41차 연차 학술대회자료집, 2-3.
- 도홍열 (1999). 남북한 주민의 가족의식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3(2), 83-96.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2003).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도 서출판 오름.
- 박경숙 (2013). 북한 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혜인 (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I. 서울: 교문사.
- 북한연구소 편집부 (2012). 북한의 불륜커플 ‘8.3부부’. 월간북한, 138.
- 손정호 (2014.1.8). 한국 사회통합지수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5530>에서 2014년 6월 25일 인출.
- 옥선화 (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 서울: 교문사.
- 이경식 (2009). 북한의 생각, 북한의 생활, 북한 사람들. 경기: 한국학술정보.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통일에 앞서 보는 북한의 가정생활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6).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우영 (2012). 최근 북한 사회와 주민생활의 변화. KDI 북한 경제리뷰, 14(10), 3-13.
- 이윤재 (2013.5.30). IMD, 한국 2013년 국가 경쟁력 ‘22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2923262064023>에서 2014년 2월 10일 인출.
- 이종재 (2014). 남북한 통일전망과 통일교육의 과제. 남북통일시대 대비교육제도의 발전 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제41차 연차 학술대회자료집, 1.

- 이주철, 오유석 (2007).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경제위기 대응과 의식변화. *지역사회학*, 8(2), 59-87.
- 정순화, 임정하 (2013).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인간발달연구*, 20(4), 59-79.
- 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 통일교육원 (2013). *북한 이해 2013*. 서울: 통일부.
- Banfield, E.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은영(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91).
- Kul, D. H. Jr. (1925). *Country life in south China: Phenix village, Kuwantung,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by Karl Mannheim*.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Todd, E. (1997). *유럽의 발견: 인류학적 유럽사*. 김경근(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원본 발간일, 1990).

1 차원고접수 : 2014. 10. 14.
수정원고접수 : 2014.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4.

A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y Val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hung, SoonHwa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family values in North Korea and identify differences in the family val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condary data including the North Korean Familial Law Act, a series of 『Choson-yeosung』, and 2013 report on the Korean values were used. Results showed that changes in family values in North Korea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the extended family structure was preferred. Getting married to an honorable soldier was highly recommended. The revolutionary comradeship was prioritized over the intimacy between the married-couple. Childbirth was important for producing a pillar for socialism and family support for elderly was also emphasized. The main differences were as follows: 1) in terms of family life, the nation was prioritized in the North whereas each individual was prioritized in the South, 2) there were more social restrictions on dating, mate selection, and divorce in the North, 3) greater inequality exist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the North, 4) goals of childrearing were differen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5) filial piety towards elderly parent was more strongly accepted in the North. The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differences of family values after unification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family value, North Korea, Choson-yeosung (Choson Women), family life education